

대학생의 자아탄력성, 대학생활만족도 및 성취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

임 주 영(동의대 강사) · 윤 경 자(동의대 교수)

성인기에 들어서는 대학생들에게 진로결정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발달과제로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성인기로의 전환이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. 이 연구는 357명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내적변인들인 자아탄력성, 대학생활만족도 및 성취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.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목표선택, 정보수집, 문제해결, 미래계획, 및 자기평가 등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.

이를 위해 기초통계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, 전반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각각의 하위척도에 따라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차이가 있었다.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자아탄력성과 책임감에 대한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목표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. 자아탄력성은 $\beta=.31$ 로서 $p<.0005$ 로 나타났고, 성취동기 중 책임감은 $\beta=.32$ 로서 $p<.0005$ 수준에서 유의하였다. 이 변수들은 48%의 설명력(수정된 R^2)을 나타내었다.

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정보수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아탄력성과 책임감으로 나타났으며, 각각 $\beta=.25$ ($p<.0005$)와 $\beta=.34$ ($p<.0005$)로 나타났고, 설명력(수정된 R^2)은 41%였다.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문제해결은 자아탄력성($\beta=.24$), 대학생활만족도($\beta=-.12$), 성취동기 중 과업지향($\beta=.31$)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모두 $p<.0005$ 에서 유의하였다.

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미래계획은 자아탄력성($\beta=.26$), 성취동기 중 책임감($\beta=.25$), 성취동기 중 과업지향($\beta=.26$) 변인들에 의해 모두 $p<.0005$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설명력(수정된 R^2)은 49%였다.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자기평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아탄력성($\beta=.32$), 성취동기 중 책임감($\beta=.36$)으로 나타났고, 이 변인들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 자기평가를 설명하는 변량의 56%를 보여주었으며 모두 $p<.0005$ 에서 유의하였다.

본 연구의 결과들은 대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자아탄력성과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.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상담, 인생계획 및 교육에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.